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생명을 살린 임용진 학우의 ‘당연한 일’



이번일에서 학우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한 임용진 학우

지난 4월 7일 임용진 학우(특수체육교육 19)는 평소와 같이 생활협동조합 사무실에 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무 중이었다. 임 학우는 10시 50분경 체육과학관 1층 편의점 주변을 정리하던 중 편의점 내부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진 학생을 발견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주변에 있던 학생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한다. 다행히 119에 신고는 이뤄지고 있었고, 그는 곧바로 나서서 응급 조치를 시작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당황했음에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에 따라 적절히 대응했다. 또 119와 전화가 연결된 이후에는 구조대원이 말해주는 방법에 맞춰 열심히 움직였다. 임 학우는 구급차가 도착한 후에야 본인이 수업이 있음을 깨닫고 강의실로 향했다.

임용진 학우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 말

했다. 이후 경위를 묻자,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뇌전증 환자가 발작을 일으키면 허를 찌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얼핏 났다”라고 말했다. 이에 먼저 기도를 확보하고, 허를 빼내려고 노력했으나 턱 근육의 경련이 워낙 심해 입을 벌릴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먼저 거품과 섞여 나오는 피를 흘려내기 위해 학생의 몸을 오른쪽으로 눕혔다. 이 과정에서도 관절 부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몸을 손으로 대지 않고 옷을 잡아 신체를 돌리는 전문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옷깃을 내리는 등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떠올리며 적절하게 대응했다.

이런 지식의 배경을 묻자 “과의 특성상 교직 이수를 위해선 응급처치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했다. 그 당시 체득했던 지식이 자연스레 발현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내가

아니어도 특수체육교육과 학생이라면 누구나 조치했을 것”이라며 겸손함을 표했다. 그날 이후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이 있냐는 질문에는 “학교생활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하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응급 처치를 받았던 학생은 이후 서울아산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겨져 관련 검사를 받고 회복 중이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았다. 그는 임 학우를 직접 만나 연락처를 받고 메시지를 통해 장문의 감사 인사를 남겼다고 한다. 한편 임 학우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응급처치 교육과 상황 조치 관련 교육이 더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삼 처장의 출사표, “학교 발전에 도움 되고 싶다”

문원재 신임 총장이 직무 수행을 시작함에 따라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본교는 4월 17일자로 교무처장에 생활체육대학 특수체육교육과 조준호 교수, 기획처장에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박선영 교수, 훈련학생처장에 스포츠과학대학 체육학과 김진해 교수(최고경영자과정원장 겸임)를 각각 임명했다.

교무처장 조준호 교수는 “총장님을 보좌해서 학교가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리더십 중에서도 서번트 리더십(구성원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는 리더십) 같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원, 교직원, 학생을 잘 섬겨서 학교가 더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구성원과 소통을 통해 우리 학교가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기획처장 박선영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한 대학 발전과 대학교성원 및 조직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부재정지원 사업을 통하여 교육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국립대학육성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평가하는 일에도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훈련학생처장 김진해 교수는 “우리 학교 선수들이 가능하면 선발전에서 국가대표로

많이 발탁되도록 지방훈련이나 전지훈련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범위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외국 국가대표 및 체육계와 많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들 취업도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다방면으로 또 심층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교무처장·기획처장·훈련학생처장의 임용기간은 2025년 4월 16일까지이며, 이를 제외한 보직 인사발령자의 임용기간은 2025년 4월 18일까지다.

김수빈 기자 honeysu72@naver.com

취업시장에 한 발짝 가까이!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특강

2023학년도 1학기 취업특강이 4월 25일, 5월 3일 두 번에 걸쳐 필승관 2층 메이커스페이스에서 진행됐다.

1차 취업특강은 ‘스포츠산업 트렌드와 그에 따른 대외활동’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의는 ㈜와우메니지먼트그룹 스포츠 이벤트 팀 수석국장을 맡고 있는 박재민 강사가 맡았다.

크게 1부는 마케팅 전략, 2부는 대외활동 정보로 구성됐다, 1부에서 박 강사는 마케팅이 지녀야 할 자질 3가지로 ‘정보력’, ‘본인만의 노하우’, ‘인적 네트워크’를 뽑아 설명했다. 또 슬램덩크를 예시로 들며 스포츠 마케팅이란 ‘슬램덩크의 열기를 어떻게 KBL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부 대외활동으로는 커뮤니티 활동(△스마트SmarteR △스마트잡알리오) 및 여러 스포츠조직의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했다. 스포츠와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전했다.

박 강사는 특강 후 인터뷰에서 “한국체대 학생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특별한 존재임이 분명하다”라며 스포츠 마케팅 산업에 진출하는데 큰 가치를 지녔음을 강조했다.

1차 취업특강을 들은 이호성 학우(사회체육 20)는 “이번에 처음으로 취업특강에 참여했는데 스포츠와 마케팅에 관해 배운 점이 많다.”라며 스포츠산업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되어 좋았다고 전했다.

2차 취업특강의 주제는 ‘자기분석과 강점 찾기’였다. 현재 상명대학교 지능형로봇학

과에서 산학협력 초빙교수로 재임 중인 김현빈 교수가 강의를 진행했다.

김 교수는 강의에 앞서 요즘 인기 있는 MBTI 애기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강의 내용은 특강의 제목처럼 자기분석과 강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성공보다 본인의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한 김 교수는 “남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강의 중 “자신의 단점을 파악해야지 그걸 인정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고 자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DISC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며 강점을 찾고, 만다라트 기법을 통해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설명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특강 직후 김 교수에게 강의 소감을 물었다. 그는 “한국체대에서 한 강의는 처음인데 건물과 운동부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말했다. 또 “체육대학 학생들이라 취업에 대해 소극적일 줄 알았으나 타 대학보다 더 활기차고 열정적이어서 감동했다.”라고 웃으며 대답했다. 진로에 갈피를 못 잡고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는 “사회에서 원하는 융복합 인재가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라.”라며 조언했다.

2차 특강을 수강한 강민서 학우(체육 22)는 “평소에도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 좋아했는데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든지 많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박서진 기자 psj3158gh@naver.com

원지호 수습기자 jho305406@naver.com

4월 교내 문화교류사업 사격 프로그램 불발

총학생회, “소통 문제 해결해 즐거운 학교 생활 만들어 나갈 것”

지난달 24일 18시 30분, 교내 문화교류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던 사격 프로그램의 참여자 20명이 사격장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프로그램 주최 측인 총학생회(이하 ‘총학’)로부터 당일 ‘프로그램 취소’를 전달받은 것이다.

매달 하나의 종목을 선정해 스포츠과학대학(체육학과, 경기지도학과) 학우들이 멘토, 타 대학(생활체육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학우들이 멘티가 되어 종목을 지도하고 체험하는 해당 사업은, 당초 대학 구성원들 간 교류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3월 테니스 종목을 시작으로 많은 인기를 얻으며 4월에는 사격 종목으로 그 인기를 이어가고자 했으나, 돌연 2회차에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말았다. 소식을 접한 학보사는 임기성 총학생회장(사회체육 19)을 만나 프로그램 불발 경위의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프로그램 진행 한 달 전, 총학은 사격장 사

용 협조를 구하기 위해 사격부 담당 교수와 조율 과정을 거쳤다. 4월 마지막 주 모든 날자에 시간과 장소를 할애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고, 24일로 최종 일정을 확정된 총학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순차적인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프로그램 당일 시작 20분 전, 급작스럽게 사격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사격부 학우들의 시험 준비로 사격장에 야간 훈련 일정이 잡혀있었기 때문이다. 급히 훈련을 담당하는 사격부 조교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의했지만, 조교는 프로그램 진행 자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국 프로그램 취소는 불가피했고, 참여자들은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해당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총학생회장은 마지막 주라고는 했으나 특정 날짜를 짚어서 확실하게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또 실무를 담당하는 사격부 조교와는 직접

컨택을 하지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총학과 사격부 담당자들 간 ‘정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문제 발생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에 프로그램 준비 과정의 미흡함과 행사직전 사격장 사용 불가 등 통보에 미리 대응하고 안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와 입장을 밝히며, 어렵게 발걸음 한 학우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참여자들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10분 전 대면으로 상황 설명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함을 공지하며 사과를 드렸고, 이후 참여자 단독방을 통해서도 사과문을 게시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격부 담당자와 추후 한 번 더 논의해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 방지 및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기민정 기자 bizarre_jade_stay@naver.com

2023 한국운동역학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한국체대 합동강의실에서 열려

4월 21일 ‘2023 한국운동역학회 춘계 학술세미나’가 한국체육대학교 본관 합동강의실에서 개최됐다. (사)한국운동역학회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주최한 이번 학술세미나는 한국운동역학회 임영태 회장과 한국체육학회 이한경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스포츠 현장에서 운동역학의 의미를 찾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진행됐다.

임영태 회장의 개회사와 이한경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구두발표, 2부 초청 강연, 3부 구두발표 후 임시 총회와 폐회사를 끝으로 이번 춘계 학술세미나는 막을 내렸다. 1부는 ‘기계체조 도마 수행력에 따른 조주구간의 운동학적 특성 연구’를 포함한 6개의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부산외국어대학교 박일봉 교수의 ‘스포츠 동작분석에 따른 스포츠 특이적 (재활)훈련 방법’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마지막 3부에서는 ‘달리기 착지 유형에 따른 인체 충격

분포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 5개의 발표가 있었다.

3부에서 ‘달리기 착지 유형에 따른 인체 충격분포에 관한 연구’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한국체육대학교 이영성 박사는 “오랜만에 대면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매우 떨렸다. 더욱이 내가 석·박사 학위를 받은 학교에서 학회가 개최되어 발표 내내 더 긴장됐다. 그래도 내가 한 연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었고, 잘 마쳤다고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박사는 “코로나 19 기간에는 많은 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온라인으로만 수업과 발표를 들어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기회가 적었는데, 이번 대면 회화를 통해 오랫동안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로 지식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좋았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소영 기자 qkrthdud0330@naver.com